

NEWS 방송계 동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C 2017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가 KOC 2017 컨퍼런스를 11월 14일 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개최한다. 미디어를 중심으로 IT와 사회, 문화 전반의 흐름을 알아보는 KOC에서는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디어의 전망을 살펴볼 전망이다.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1987년 11월 14일을 시작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에 기념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방송기술의 위상을 드높인 방송기술인을 위한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소는 KOC 2017 컨퍼런스가 열리는 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BBS

BBS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 세미나



BBS 불교방송은 청소년들의 마음 치유와 인성교육에 앞장서 온 만큼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하고 BBS TV를 통해 3주에 걸쳐 방송한다. 1주 차에는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토론이 방송되고, 2주 차에는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방향과 불교적 인성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3주 차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해 방송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입시위주 교육과 무한경쟁으로 인성이 피폐해진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하는 불교 교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였고, 불교는 미래 사회 인성 교육의 중요한 콘텐츠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

방송사 최초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

SBS는 한국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SBS 노동조합은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대주주 및 사측과 합의했다. 제도에 따르면 사장은 SBS 재직인원의 60%, 편성, 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가 반대하면 임명을 할 수 없다. 임명 동의제는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BS UHD 부조정실 구축 완료



SBS는 UHD 부조정실을 구축 완료하고 UHD/HF 동시 라이브방송을 제작 송출하였다. UHD/HF 동시 라이브 제작시스템은 보도프로그램의 고화질 영상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뉴스제작뿐 아니라 중계부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설계로 차세대 방송 제작에 중요한 교두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KTskylife

KTskylife 맞춤형 OTT '텔레비'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9월 상암동 '텔레비(TELEBEE)' 출시 행사를 열고, 20~30대 1인 가구를 겨냥한 개인 맞춤형 TV기반 OTT 서비스를 선보였다. 텔레비는 약정 없이 원하는 채널을 저렴하게 골라보는 것이 특징이며 지상파, 종편 등 8개 채널로 구성된 기본팩을 월 3,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영화,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약 30여 개 채널 중 원하는 채널을 골라 채널당 월 550원에 이용할 수도 있다. 중국 샤오미 '미박스'에 구글 운영체제(OS) '누가'를 탑재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독자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OTT 시장 흐름에 따라 '텔레비'로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샤오미,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왓츠플레이 등 이종 영역의 다국적 사업자와 손잡고 차원이 다른 비디오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CBS

CBS 시네마, 새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개봉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CBS 시네마가 새로운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을 개봉한다. '내게 남은 사랑을'은 CBS와 와호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한 최초의 극영화 프로젝트로, 위기에 처한 중년의 한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야기를 진심 어리게 담아낸 영화이다. 성지루, 전미선 등 연기파 배우와 양홍석, 권소현 등 아이돌의 연기가 조화를 이뤄 탄생한 이번 작품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게 해 줄 것

이다. '내게 남은 사랑을'은 11월 2일 전국 극장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미디어 외교 20년... 국제방송의 나아갈 방향은?



글로벌 시대에 맞서 미디어 외교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10월 6일 방영된 아리랑TV 시사 토론 프로그램 'UPFRONT'에서는 한국 미디어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김태환 교수는 아리랑TV가 국제방송시장 상황으로 볼 때 '전 세계 1억 수신가구를 돌파한 것이나, 2015년 미국 유엔본부 내 부채널에 진입한 것이 의미 있는 실적'이라 말했다.

이병중 교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제방송사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자국의 정책이나 가치를 전파하는 미디어 외교의 제2막이 열렸으며, 현재 한류에 치우쳐져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뉴스, 다큐멘터리와 같은 일반 프로그램을 더 키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의 정책과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두 교수는 '정부가 국제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마무리하였다.

tbs

tbs 기술인협회 가을 체육행사 개최



tbs 기술인협회(회장 김응석)는 10월 21일(토)에 행주산성 일대에서 가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주산성 트래킹 및 족구와 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협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BS

EBS, 일산시대 개막, 콘서트 '풍류 그리고 한류' 열려



지난 9월 28일, EBS는 경기도 일산 신사옥 건립을 기념하는 콘서트 '2017 풍류 그리고 한류'를 개최하였다. 관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밤 관객들은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를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음악세계를 선물하였다. 또한 EBS 라디오가 특별 기획한 이번 콘서트는 일산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EBS의 미래를 엿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OBS

OBS 특집 다큐멘터리 '분단의 땅, DMZ를 달리다'



OBS 특집 '분단의 땅, DMZ를 달리다'가 지난 10월 9일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달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최북단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린 제2회 DMZ 트레일러닝(Trail Running) 대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DMZ 트레일러닝은 단순한 달리기 아닌 국가와 안보를 생각하게 하고 천혜의 자연을 보며 얼어붙은 심장을 뜨게 하는 생명의 레이스이다. OBS는 100km, 2박 3일간 극한의 한계에 부딪히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레이스를 통해 DMZ가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